

## 인사는 사람과의 교류를 공유하는 첫 디딤돌

작가 에세이

백정환  
시인·수필가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공동체에서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때문에 혼자서는 다양한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는 모든 생활에서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도 없을 것이다. 개인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지혜를 모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도 또 다른 구성원들과 새로운 인연으로 연결되는 사회다.

처음 만남은 얼굴 표정과 몸가짐 언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첫 인상이 형성될 수도 있기에,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인사에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첫 인상에 대한 담론도 많다. '첫인상이 평생 좌우한다', '첫인상 5초의 법칙', '첫인상 10계명' 등이다. 첫인상의 핵심은 인사다. 첫인상에 도움을 주는 인사는 연령, 성별, 직업, 직위에 관계없이 존경과 진솔함이 담겨져 있어야 하며 정중하고 밝은 미소가 동반되어야 한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눌 때만이 친근감으로 다가설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여 만날 때는 우선 가벼운 인사말을 먼저 건네며 약속을 나누는 것도 일종의 스킨십(skinship)이라 할 수 있다. 인사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앞서

야 한다. 한 편으로 상호 교류에서 기본적인 매너는 필수적이다.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에 대하여 간략한 특징을 파악하고 기억에 남겨 두어야만 향후에 연결고리 인연에서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분이 있는 사람과 인사는 올바른 자세와 언행으로 맞이하면서 기억에 있었던 일들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서 가벼운 악수로 스킨십 형식의 인사말을 건네

**“잠깐 머무는 공간마다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 지수도 달라진다고 한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정중하고 진솔한 자세로 즐겁게 인사를 나눌 때 기분도 상쾌해질 수 있을 것이다.”**

는 것도 자연스런 인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인사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말이나 태도로 관심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사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나 예의를 갖추어 진솔함과 존경이 담겨진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공손과 바른 예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깎듯하고 개 속일 때, 자신도 그 사람에게 공손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존경 받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말이 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손아래 사

람과 마주 할 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표현으로 마치못해서 하는 인사는 서로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의 교류를 공유하는 가교 역할의 첫 디딤돌이라 한다. 사람마다 제 각기 인사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사 태도는 상반신을 굽히거나 머리를 가볍게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숙이는 정도와 속도와 언어의 억양과 표정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절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인사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잠깐 머무는 공간마다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 지수도 달라진다고 한다. 평소애 습관화 되어 있는 인사예절이 인간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정중하고 진솔한 자세로 즐겁게 인사를 나눌 때 기분도 상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든 서로가 올바른 인사 예절로 마주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나 상대의 아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사가 된다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올바른 인사예절을 익혀가면서 꾸준한 반복행동이 습관화되어 유익하고 보람된 생활을 하며, 상호간에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면 스스로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올바른 인사예절을 갖춰 언제 어디서나 다정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들의 공동체 공간에서 해맑은 미소들이 넘쳐나 날로 행복이 듬뿍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마다 바른 인사예절이 정착되기를 소망해 본다.

## 교육도시 광주, 큰 스승을 기리자

기고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광주는 남도를 대표하는 교육도시다. 광주가 교육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895년, 나주를 제치고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기 때문과 관련이 깊다. 1896년 관찰사 소재지에 근대학교가 세워지면서, 광주에도 광주향교의 사마재 건물을 빌려 전라남도관찰부 공립소학교가 설립된다. 현 서석초등학교로, 광주 근대 교육의 출발이 된다. 이후 1908년 송일·수피여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고, 1909년에는 도립 광주 농업학교(현 자연과학고)가 그리고 1920년에는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가 설립된다. 1923년에는 전남사범학교, 1927년에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가 설립되면서, 광주는 남도 최대의 교육도시가 된다. 1919년 3·1운동 당시 초·중등학교는 광주보통학교를 비롯 5개교에 불과했지만, 지금 광주의 초·중등학교는 320개가 넘는다. 여전히 광주는 호남 교육의 중심 도시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을 날을 맞아 상무지구 5·18기념공원에 있는 석은(碩隱)

김용근(金容根, 1917~1985) 선생 흉상 앞에서 제29회 김용근 선생 민족 교육상 수상자 시상식이 열렸다. 김용근 선생은 강진에서 출생,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전주교과와 광주교과, 광주일고, 전남고 등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한 교사다. 일제 치하에서는 개량 서당의 교사가 되어 민족교육을 실시하다 보안법 및 육군형법 위반죄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에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에 책임을 지고 교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1980년 5·18민주항쟁 당시에는 지명수배된 제자를 숨겨 준 혐의로 투옥되었다. 김용근 선생이 1987년 독립유공자로, 2002년 5·18 유공자로 추서된 연유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임을 설파하셨던 김용근 선생은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실천한 참 스승이요 큰 스승이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정신을 기려 '석은 김용근 선생 민족교육상'을 29년째 이어오고 있음이 그 증거다.

교육도시라 불리는 광주는 어딘지 허전하다. 근대 교육의 출발지가 되었던 사마재 건물은 없어진 지 오래고, 어느 사·도에도 있는 교육역사관 하나 없다. 뿐만 아니다. 수많은 큰 스승이 배출되었지만, 오늘 그 이름을 기억하는 분은 적다. 동상 등을 세워 큰 스승을 지켜주지 못한 풍토 때문이기도 하지만, 큰 스승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근시안 때문에도 그렇다.

5·18기념공원 김용근 흉상 옆에 광주의 큰 스승을 기리는 흉상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광주 3·1운동 당시 앞장서 수피여학생을 이끈 박애순 선생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광주교보의 송흥 선생도, 교육 민주화의 선두에 선 윤영규·정해숙 선생도, 민주화 운동을 앞장 서 이끈 오종렬, 박행삼 선생도 광주가 낳은 큰 스승이다. 이분들이 있어 광주 3·1운동 당시 수피여학생 전원이 만세를 불렀고, 광주교보생들은 퇴학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와 싸웠다. 이분들이 있어 광주 학생들은 4·19혁명의 주역이 되었고, 5·18민주항쟁 당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켜냈다.

이분들의 흉상이 김용근 선생 흉상 옆에 나란히 세워진다면, 오늘 광주 학생들의 큰 바위 얼굴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큰 뜻이 전해질 것이다. 그게 생명력 진한 교육이다.

광주는 시대정신인 정의로움을 앞장서 실천한 자랑스런 고장이다. 그 선두에 늘 학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 뒤에는 길을 안내한 큰 스승이 있었다. 그 자랑스러운 고장을 만들 수 있게 베풀어준 큰 스승이 동상이 되어 우리 곁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다.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기고 심창욱 광주시의원

## 5·18 '축제의 장' 변화 모색해야



매년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온화한 기온 속에 다양각색의 화려한 꽃내음이 만발하는 그지없이 좋은 달이다.

그러나 우리 광주의 5월은 어떠한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임에 확실한 것은 우리 광주시민만큼은 아마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일 것이다.

광주시민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일러 주지 않아도 안다. 그리고 느낀다. 광주의 5월을!

나아가 광주시민은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스스로 앞장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뜨겁게 외치다 숨겨진 그분들을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기억하며 추모한다.

그렇다. 우리들은 그렇게 광주시민이기에 그날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것이다.

그렇게 광주의 정신이 되어버린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전국화·세계화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진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광주의 5월 봄은 더욱 특별하고 다르다.

최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필자를 포함한 5명의 청년의원(강수훈·이명노·정다운·채은지)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올해 43주년을 맞이했음에도 일부 극우세력의 지속적인 진실 왜곡·폄훼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불협화음 속 최근 고소·고발까지 난무하는 등 반목이 극에 달해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 또한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듯 함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우리는 5·18 관련 단체가 통 큰 화해로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전국화·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실 발언 전까지 5명의 의원들은 걱정이 많았다.

혹여나 "5·18민주화운동을 겪어보지 못한 당인들이 무엇을 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길 하느냐"는 당사자나 외부의 오해가 있을까 염려해 비공개로 2개월여간 준비했다.

이렇듯 우리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인 것이다.

의원들은 발언 이후 5·18기념재단, 3개

공법단체(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 중앙회·공로자회),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차례로 찾았다. 또 광주시·광주시의회·언론·시민이 함께하는 '협치 거버넌스'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정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제안으로 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어떻게 해서든 관련 단체나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이다.

'하늘을 봐야 별을 만난다'고 일단은 서로 만나야 뭐가 되든 될 것이 아니겠는가?

만나서 들을 이야기가 있으면 듣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당당히 하고,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하며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각 기관이나 단체의 특성상 업무와 요구하는 바가 다르며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도 예상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5·18 진상 규명과 헌법 전문(前文) 수록 등 중차대한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언제까지 내 탓 내 탓 서로 비방하고 소송하며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더 이상의 반복과 갈등은 제발 그만두고 모두가 늘 주장하던 오월정신(五月精神)으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야말로 '산자'들의 진정한 의무고 상속자들의 목표일 것이다.

필자는 '뜻이 같으면 행동도 같다'는 말을 좋아한다.

그동안 43년에 걸쳐 밤낮으로 피땀 흘리며 노력해 온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광주시민의 것만이 아닌, 그렇다고 특정 단체의 전유물도 아닌 전국화·세계화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근본의 뜻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를 위한 행동 또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자료를 근거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향이 단순 추모가 아닌 축제의 장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5·18민주화운동의 이면에는 슬픔과 아픔의 당사자가 있기에 마냥 즐거워할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분명 달라지고 변화시켜야 상속받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탈리아 '오성운동'당의 질다 스포리티엘로(Gilda Sportiello) 의원이 7일(현지 시각) 로마 하원에서 입법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다. 스포리티엘로 의원은 이탈리아 의회에서 처음으로 모유 수유한 의원이 됐으며 여러 의원으로부터 초당적인 박수를 받았다. 로마=AP/뉴스시스